

하와이 다문화에 한인 이민자들도 기여했을까?: 하와이 한인 이민사의 경험과 교훈, 1903~1959*

이덕희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 소장

하와이 다문화 형성 과정을 살피고, 111년 전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노동자로 시작한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 다문화에 공헌하는 사례를 둘러본다. 하와이 다문화 형성은 정부의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시민의식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다문화 형성이 하와이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타국의 문화를 다르다고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의식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 경제 수준에 근거를 두는 문화우월주의는 다문화 사회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 다민족 문화, 사탕수수 노동자 이민, 이민 정책, 사립학교, 시민단체, 문화우월주의

I. 들어가는 글

1927년 4월 8일 아카데미 오브 아트(Academy of Arts: 현 호놀룰루 미술박물관) 개관식에서 창설자 애나 쿡(Anna Rice Cooke)은 미술박물관을 창설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다.

하와이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의 자녀들은 미술과 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나라뿐만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 사는 하와이 원주민,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필리핀인, 북유럽인 등 모든 이웃들의 문화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한다. 미술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공통된 본성을 알게 되고, 오래된

* 영문으로 된 이 논문 "Early Korean Immigrants' Contribution to Hawaii's Multiculturalism, 1903~1959"은 2014년 2월 14일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n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에서 발표되었다. 이 한글 논문은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 관하여 부연한 후기(後記)를 더하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한 2014년 상반기 학술회의(2014년 4월 15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다른 문화를 토대로 이 하와이 땅에 새로운 문화의 꽃이 피어날 것을 기대해 본다 (Ellis, 1990: 10).¹

물론 쿡 여사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이미 ‘다문화’라는 개념이 잘 드러나 있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쿡의 발언이 있은 후 40여 년이 지난 1971년 캐나다 정부가 영어권과 불어권 커뮤니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Raihanah, 2009: 63-70). 쿡은 하와이의 여러 소수 인종 중 하나인 백인이었고, 그가 창설한 다문화 미술관은 1852년부터 하와이에 뿌려진 다문화의 씨앗들이 피운 꽃이었다. 하와이의 다민족 사회는 약 1,500년 전 태평양의 마케사스 섬과 타히티 섬 등에서 이민 온 하와이 ‘원주민’과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한 노동 이민자들로 이루어졌다. 이 속에서 움튼 것이 바로 다민족 문화다.

그렇다면 하와이의 다문화, 혹은 다민족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누가, 어떻게 하와이의 다문화를 빚어내었을까? 정부의 이민 정책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민 상황을 결정하였지만, 과연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 다문화 형성에도 제도적으로 관여하였을까? 한인 이민자들도 하와이 다문화에 기여한 바가 있을까? 특히 한국인이 정치적으로 일본인으로 간주되던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하와이 사회는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논문은 이런 여러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를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 종교, 음식, 사회관습, 음악, 무용, 미술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미국 등 많은 이민자들을 포함하는 나라의 문화는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에 의하여 형성”(Zimmerman, 2012)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런 점에서 하와이의 다문화는 하와이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문화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며, 이 논문에서 ‘다문화’, ‘다민족 문화’라는 용어는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한다.

이 논문은 서문에 이어 II장에서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가 이주해 오기 시작한 시기부터의 이민사를 간략하게 논함으로써 하와이 다문화가 이루

¹ 2014년 2월 이 호놀룰루 미술박물관에 임진왜란 이전 1586년에 그려진 계회도(契會圖)가 소장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문화재청에서 복구·보존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어진 배경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한인 이민사의 여러 사건과 에피소드를 인용하여 한국 문화가 하와이 다문화 속에 어떻게 포함되었는가의 과정을 설명한다. IV장의 결론에서는 하와이 다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가운데 한국 문화가 어떠한 양식으로 존재하였는가를 정리해 본다. 이어 나가는 글에서는 하와이 다문화에 기여한 한인 이민자의 경험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형성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 지적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연구 시기는 1903년 한인 이민이 시작된 때부터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격된 1959년까지로 제한한다. 하와이가 미국의 주로 승격된 1959년에 제트 여객기가 항공 교통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주 승격과 더불어 제트 여객기 이용은 하와이 관광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하와이의 다문화 진흥과 홍보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더욱이 그로부터 6년 후 1965년에 개정된 미국의 이민법에 따라, 이른바 ‘현대판’ 한인 이민자를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입주하였다. 이들은 사탕수수 농장 임용이 아닌 많은 다른 목적으로 온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이었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화 양상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59년 이후의 다문화 형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별개의 연구가 필요하다.

II. 하와이 다민족 사회

하와이왕국(1795~1893)의 원주민 인구는 1831년에 12만 5,000명이었지만, 1850년에는 8만 4,000명으로 감소하였다.² 감소하는 인구와는 달리 급증하는 사탕수수 산업으로 하와이왕국은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하와이왕국은 중국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852년 1월 3일에 약 200명의 중국인이 첫 외국인 노동자로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1851년에 조직된 왕립 하와이 농업조합(Royal Hawaiian Agricultural Society)이 중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

² 하와이왕국의 역사에 관하여는 Kuykendal (1938, 1953, 1967 3집) 참조.

이 계속되어 1898년까지 3만~4만 명이 사탕수수 농장에 투입되었다.

중국인 다음으로 도착한 이민은 포르투갈의 노동자들이었다. 1878년 9월 30일에 도착한 120명의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하여 1913년까지 모두 2만 5,000명의 포르투갈 노동자들이 입국하였다. 이들의 이주 경비는 1864년에 창설된 하와이왕국 이민국에서 담당하였다. 일본인 노동자의 입국은 1885년에 시작되었다. 1885년 6월 17일에 943명이 도착하였고, 이들의 이주 경비는 1882년에 조직된 농장 노동자 공급회사(PLSC: Planter's Labor & Supply Company)가 담당하였다. 1894년 6월까지 총 2만 8,691명의 일본인 노동자가 입국하여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총 노동자의 약 6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하와이왕국은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 노동자들은 단합하여 자주 파업을 하였고,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곤 하였다. 1890년부터 1897년 사이에 일본인 노동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한 사례는 29차례에 달했다. 사탕수수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다수 일본인 노동자들의 '횡포'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그에 따라 1895년에 조직된 하와이 사탕수수경작주회(HSPA: Hawaii Sugar Planters' Association, PLSC를 계승한 단체로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사탕수수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상부상조하기 위해 만든 조직)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HSPA는 대한제국을 첫 번째 상대국으로 지명하고, 서울 주재 공사 알렌(Minister Horace Allen)과 접촉하였고, 드디어 1902년에 알렌이 고종황제로부터 대한제국의 신민이 하와이로 이민갈 수 있다는 윤허를 받았다.

1903년 1월 13일에 102명의 한인 이민자(부인 21명과 아동 26명을 포함)가 호놀룰루항을 통해 하와이 땅을 밟게 되었는데, 하와이왕국이 멸망하고 미국의 영토로 편입된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그 후 1905년 8월까지 약 7,400명의 한인 이민자가 하와이 영토에 도착하였다. 그 중 약 2,000명은 미주 본토로 이사하였고 1,000명은 환국하여, 1910년 인구조사에 4,533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680여 명의 '사진신부'를 포함한 약 900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는데, 이들은 일본 여권을 가지고 왔다.³

³ 한인 하와이 이민 약사에 관하여, Tae-Ung Baik and Duk Hee Lee Murabayashi, "The

표 1 하와이의 다민족 분포 상황

	1853	1878	1884	1890	1900	1910
하와이안	70,036	44,088	40,014	34,436	29,799	26,041
혼혈 하와이안	983	3,420	4,218	6,186	9,857	12,506
백인	1,687	3,748	16,579	18,939	26,819	44,048
포르투갈인	87	486	9,967	12,719	18,272	22,301
기타 백인	1,600	3,262	6,612	6,220	8,547	21,747
중국인	363	6,045	18,254	16,752	25,767	21,674
일본인	0	0	116	12,610	61,111	79,675
한국인	0	0	0	0	0	4,533
필리핀인	0	0	0	0	0	2,361
기타	67	684	1,397	1,067	648	1,071
합계	73,137	57,985	80,578	89,990	154,001	191,909
	1920	1930	1940	1950	1960	2010
하와이안	23,723	22,636	14,375	12,245	11,294	80,337
혼혈 하와이안	8,027	28,224	49,935	73,845	91,109	0
백인	54,742	80,373	112,087	124,344	202,230	0
포르투갈	27,002	27,588	0	0	0	0
기타 백인	19,708	3,262	0	0	0	0
중국인	23,507	27,179	28,774	32,376	38,197	54,955
일본인	109,274	139,631	0	184,598	203,455	185,502
한국인	4,950	6,651	6,851	7,030	0	24,203
필리핀인	21,031	63,052	52,569	61,062	69,070	197,497
기타	658	780	834	4,269	17,417	481,208
합계	255,912	368,336	423,330	499,769	632,772	1,360,301

출처: Robert C. Schmitt, *Historical Statistics of Hawaii*,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7 and 2010 Census.

1910년에 하와이의 총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42%의 일본인, 23%의 백인(포르투갈인 포함), 20%의 하와이 원주민, 11%의 중국인, 2.4%의 한국인, 그리고 1.1%의 필리핀인으로 구성된 다민족 사회가 되었다.

Historical Development of Early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and its Legal Structure,” *Journal of Korean Law* 11(1), Law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December 2011: pp. 77-99) 참조.

III. 하와이의 한국 문화

1. 김치

첫 한인 이민단은 오아후 섬에 도착하여 와이알루아 사탕수수 농장의 모쿨레이아 지역 ‘한인 캠프’ 내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다. 사탕수수 농장은 각 민족 노동자들이 모여 살도록 마을을 조성하였고, 포르투갈인 캠프, 일본인 캠프, 한인 캠프 등이 별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사탕수수 농장의 옛 지도와 미국 지질학회 발행의 지도에서 이들 민족 캠프 이름을 볼 수 있다.

다른 민족의 노동자들이 이웃하여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언어문제로 인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친구 집을 들락거리며 놀았고, 자연스럽게 친구 집 음식을 맛보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여러 민족 아이들이 김치를 맛보게 되었고, 포르투갈인의 국(portuguese bean soup), 일본인의 우동 등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처럼 여러 문화 중 음식 문화가 가장 먼저 보급되는 것은 언어가 필요 없어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1919년 기미년 독립운동 소식이 하와이에 전해지면서 한인 여성들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김치를 만들어 파는 일이었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인, 일본인, 필리핀인 등 모두가 김치를 사 먹었기 때문에 김치 장사를 통하여 독립운동 기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잘 진행되었다. 대구무침과 무말랭이무침도 불티나게 팔렸다. 김치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져 1930년대에는 벌써 한인 2세 조 김(Joe Kim)의 김치공장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케이 김치’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미주 본토에도 김치를 공급하였고, 1950년대에는 ‘조김김치(Joe Kim Kim Chee)’라는 브랜드로 이름이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1949년에 하와이 섬의 코할라 지역에서는 하나 김 리우(Hanna Kim Liu)가 ‘코할라김치(Kohal Kim Chee)’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52년에 힐로 인근 케에아우 지역에서 임야물(전 하와이 섬 시장 해리 김(Harry Kim)의 어머니)이 ‘케에아우김치(Keeau Kim Chee)’를 상업화하였다. 또한 1950년대 초반 호놀룰루에서는 헬렌 함(Helen Halm)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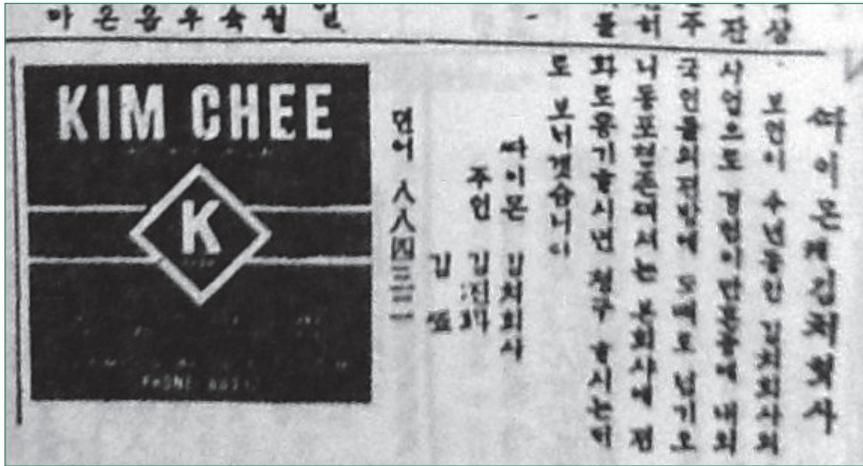


사진 1 다이아몬드 케이 김치 「국민보」 광고(1930년대)

스김치(Halm's Kim Chee)'를 상업화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케에아우김치 회사의 임야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김치 상품이 한인 2세들이 운영한 회사 제품이었다는 사실이다. 한인의 인구가 하와이 총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고, 더구나 7개의 섬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상표의 김치가 흥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김치의 높은 인기를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하와이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김치 먹는 것이 생활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대구무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구무침이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와이에서는 그 음식이 하와이 음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는 1970년대 초에 가까이 지내던 포르투갈인이 자기네 집에서는 항상 대구무침을 먹었기 때문에 대구무침이 포르투갈 음식인 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웃은 적이 있다. 또 백인 친구가 깎두기를 맥주 안주로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다.

하와이에서 김치가 이처럼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인들이 김치 냄새 나는 '조센진'을 비하한 것과 선명히 대비가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 본토에서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김치 냄새 나는 한인들이라고 하여 혐오했던 사실과도 크게 비교된다. 오늘의 한류(韓流)가 일어나기 20여 년 전 1980년대에 이미 하와이의 주요 호텔 뷔페에 김치가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김치의 인기를 입증하는 것이며, 한국의 음식 문화가 하와이 문화의 중요한 부분 중 하

나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2. 사립학교 학생 활동

한인 아동들은 한인들이 사탕수수 농장에 정착하면서부터 농장 근처 공립 초등학교에 다녔다. 한인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으로 보고되기 시작한 것은 1906년 교육청 보고서다(Territory of Hawaii, 1906). 그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공립 초등학교에는 161명의 한인 학생이 있었고, 또한 카와이아하오여학교(Kawaiihao Girls' Seminary)와 밀스학교(Mills Institute) 등 하와이 전도회(Hawaiian Board of Evangelical Association)에서 운영한 사립학교에도 한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다. 또한 1906년에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에서 개교한 한인기숙학교(Korean Boarding School for Boys)도 있었다.

카와이아하오여학교는 1864년에 하와이 원주민 여학생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이고, 밀스학교는 1892년에 중국인 남학생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다.⁴ 카와이아하오여학교에 한인 여학생이 다니기 시작한 것은 1906년부터다. 하와이 원주민 여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등 여러 민족 여학생이 함께 공부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에 익숙하게 하는 등 여러 면으로 배려하였다. 또한 밀스학교에도 1906년에 많은 한인 남학생이 다니고 있어서 한국반까지 조직하고 민찬호 교사가 담당하였다.

1913년에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는 한인기숙학교 교장으로 이승만을 임명하였다. 이승만은 곧 학교 이름을 한인중앙학교로 바꾸고 여학생들의 입학도 허용, 한국 국내외를 망라하여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가 되었다. 한인중앙학교에서는 정규 과정 이외에 오후 시간에 한국사와 한글을 가르쳤다. 이승만이 교장이 된 후 처음 거행한 1914년 졸업기념식에서 학생들이 이승만의 저서 『한국교회 필박』을 연극으로 공연하였다(이덕희, 2008: 20-25). 이 연극이 영어로 공연되었는지, 아니면 한국어로 공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영자 신문은 연극의 내용

⁴ 이 두 학교는 1908~1910년에 현 교사로 이전하였고, 통합하여 미드퍼시픽학교(Mid-Pacific Institute)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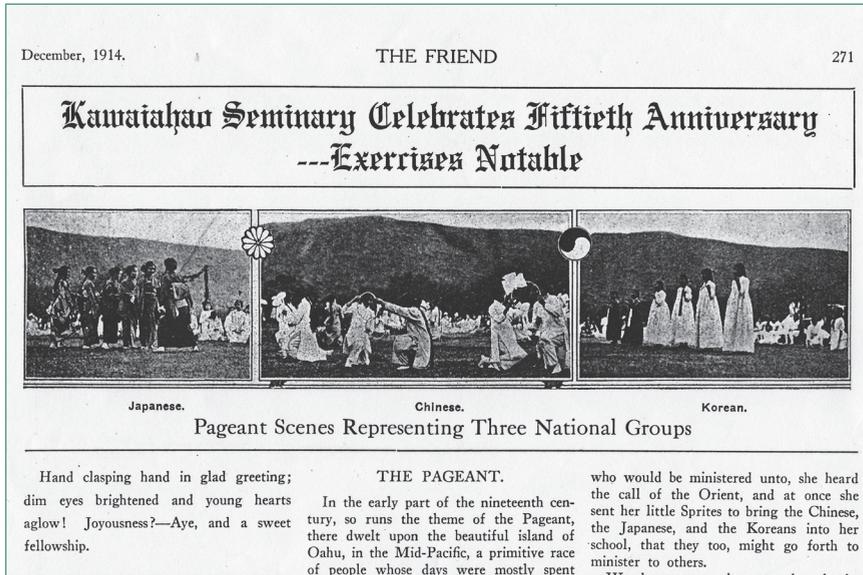


사진 2 The Friend(조합교회 월간지) 기사 사진(1914년 12월)

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막간에 선보인 노래와 춤을 칭찬하였다(Honolulu Advertiser, 1914/6/21: 5). 이 기사로 하와이 사회는 일본의 병탄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미드퍼시픽학교에서 발간한 잡지 *Ke Anuenue*는 한복을 입은 여학생의 모습을 포함하여 각국 학생들이 자국 의상을 입은 사진을 연속하여 게재하였다. 특히 1914년 12월호에는 일본, 중국, 한국 여학생들이 춤을 추는 사진을 실으면서 국화와 태극 문양도 함께 넣었다. 정치적으로 한인들이 일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기에 하와이의 사립학교가 한국의 문화를 일본 문화의 일부가 아닌 한국 문화로서 소개하고, 더구나 총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은 한인들의 모습을 널리 알렸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밀스학교는 1910년대에 매년 연날리기 대회를 주최하였는데, 호놀룰루 시민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1915년 연날리기 대회 최우수상, 1916년 우수상을 받은 연은 모두 한국 연으로, 그 주인공인 이복실과 이백기는 아버지나 동네 아저씨에게서 연 만드는 법과 날리기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한국의 전통 연날리기가 하와이에서도 빛을 발했다.



사진 3 한인여학원 학생의 광화문 모형 장식 수레(1917년 2월)

미드퍼시픽학교가 주최한 축제에는 한인여학원(Korean Girls' Seminary)⁵ 학생들이 초청되었다. 한인여학원 학생들은 광화문 모형을 만들고 한복을 입고 참가하였다. 광화문 건립 역사상 처음으로 그 모형을 내세우며 학교 축제에 참가한 것으로 이것 역시 하와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호놀룰루의 사립학교 지도자들은 각 민족의 학생들이 당당하게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승하도록 도왔고, 한인 학생들도 한국 문화 사절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3. 한인 퍼레이드

사탕수수 농장 한인 캠프에 정착한 한인들은 동장(洞長)을 선출하여 동네 질서를 유지하였다. 동회(洞會)가 하와이 한인 이민단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1903

⁵ 한인여학원은 1915년에 이승만이 한인중앙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설립한 여학교다(이덕희, 2008 참조).

년 8월 초에는 에바 농장에 신민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었고, 뒤이어 친목회, 한인상조회 등등 여러 단체가 등장하고 다른 섬에 지부도 조직되었다. 1907년까지 형성된 약 24개의 단체와 지부들은 통합을 이루어 한인합성협회를 조직하였다. 나아가 1909년 2월에는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와 미주 본토의 공립협회가 통합하여 대한국민회가 조직되었다.⁶ 국민회의 목적은 하와이 한인의 교육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국민회는 1914년 2월 1일 창립 5주년을 기하여 대대적인 기념식을 거행하고 퍼레이드도 했다. 사모관대를 한 남자들과 궁중 옷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꽃차 위에 섰고, 교복을 입은 한인중앙학교 학생들과 오후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주)광무군인들이 행진을 진행하여 호놀룰루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국민회 기념 행진에 관한 기사와 국민회 퍼레이드에서 좋은 인상을 받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탄신기념 퍼레이드 준비위원회는 국민회에게 퍼레이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회 회원들은 “조국의 광채를 다시 한 번 빛내게 될” 기회라고 열심히 준비하여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였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애드버타이저』지는 워싱턴 퍼레이드의 모습을 사진첩으로 만들어 판매하였는데, 퍼레이드 전체 사진첩(25센트)과 각 민족 사진첩(10센트)을 따로 만들었다. 한인 퍼레이드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 1권이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인들은 그 후에도 매해 워싱턴 퍼레이드에 참석하였다.⁷

4. 한국 건축양식의 교회

1917년 미드퍼시픽학교 축제에 한인여학원 학생들이 광화문 모형을 제작하여 참석한 것은 다름 아닌 이승만 교장의 제안이었다. 이승만은 광화문을 한국 건축 문화의 상징, 더 나아가 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승만이 조직한 한인기독교회⁸가 1938년에 새 교회당을 건축하였을 때, 교회 건물 앞면에 광화

⁶ 한인 단체에 관해서는 이덕희(2013) 참조.

⁷ 필자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정년퇴직한 알프레드 러드로우(Alfred I. Ludlow) 박사가 1939년 워싱턴 퍼레이드 모습을 컬러 동영상으로 찍은 필름을 소장하고 있다.

⁸ 한인기독교회에 관해서는 이덕희(2008) 참조.

문 모형이 부착되었다. 종탑 대신 조선왕국 왕궁의 정문 문루 모형이 교회당 건물에 부착된 세계 유일한 교회 건물이 호놀룰루 시내에 있는 것이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인 하와이에는 광화문 모형이 가미된 한인기독교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 고유한 건축 양식을 한 건물들이 있다. 제일중국인교회(The First Chinese Church of Christ)는 중국 건축 양식으로 1929년에 지어졌고, 마키키 일본인교회(Makiki Japanese Christian Church)는 오사카 성과 유사한 양식으로 1932년에 건축되었다. 1952년에 건축된 한인 성공회 교회인 성누가교회도 한국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물론 중국인과 일본인의 불교 사찰과 일본인 신도(神道) 사찰도 그 나라의 건축 양식에 따라 지어지긴 했지만, 1960년 이전에 기독교 교회가 세 동양 국가의 건축 양식으로 각각 다르게 지어진 곳은 하와이뿐일 것이다. 한인기독교교회와 성누가교회는 아직도 건재하여 한인 교회인 것을 알리고 있다.

5. 전통 춤

호놀룰루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1900년에 조직되어 여성에게 자수, 재봉, 음악 등을 가르쳤다. 1919년 2월에 국제부를 신설하여 각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민 여성들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한인 YWCA는 1919년 12월에 앨라배마 주 아텐스의 아텐스대학 사회사업과를 졸업한 황혜수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 조직되었다.

황혜수는 1920년 어머니클럽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생활영어 등을 가르쳐 현지화와 미국화를 도왔다. 또한 2세들의 모임인 형제클럽을 1927년에 조직하고, 한국 무용 등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도 했다. 자신이 무용을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교사를 찾아내어 무용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리고 형제클럽 회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클럽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곳저곳에서 한국 전통 춤과 노래를 공연했고, 결혼식, 단오절 풍속, 환갑잔치 등의 재연, 단막극으로 꾸민 전래동화 등을 공연하여 호놀룰루 사회에 한국 문화를 보급하였다.

황혜수는 또한 1938년에는 3세들의 해당화클럽을 조직하였다. 2세와 3세로 구성된 클럽 회원들의 공연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순서지도 영어로 작성하였다.

한편, 호놀룰루 미술박물관은 직접 무용반을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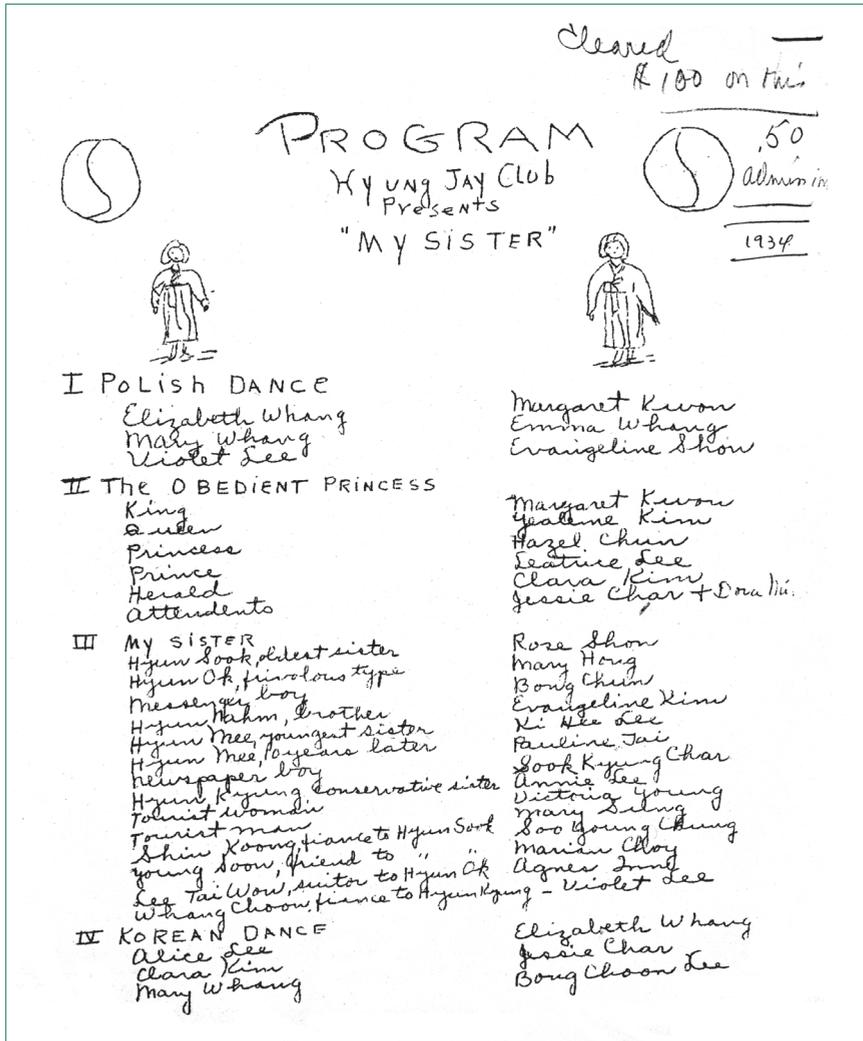


사진 4 형제클럽 공연 순서지(1934)

YWCA 회원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마련하고, 여러 부류의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였다. 1930년도 이후 행사 관련 순서지가 남아 있다. YWCA와 호놀룰루 미술박물관의 '콜라보(collaboration)'가 이루어져 다문화 형성에 이바지한 것이다.

또한 YWCA 무용반에서 전통 춤을 배운 2세와 3세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하와이대학교 등에서도 공연을 했다. 이들의 공연 순서지와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다.

1943년에 황혜수가 퇴직하면서 한인 YWCA도 문을 닫았다. 그때는 이미 모든 민족 이민자들의 2세, 3세 등이 특별히 자국 회원들만의 클럽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였고, 자연스럽게 모든 민족 YWCA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이었다.

1943년 한인 YWCA 프로그램이 없어진 후에는 한국 무용을 가르치는 곳 역시 없어졌다. 그러다 1950년 8월에 배할라 함(Halla Pai Huhm)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다시 전통 춤을 가르치는 곳이 생겼다. 할라 함은 한인기독교회 등에서 몇 명의 학생들에게 춤을 가르치다가 본격적으로 할라 함 무용소를 개설하였다. 이 할라 함 무용소는 아마도 한국 외에 있는 가장 오래된 무용소일 것이다. 2014년 현재 이 무용소 소장은 백인 매리 조 프레슬리(Mary Jo Freshley)이고 4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 전통 춤과 역사, 전통 가치를 배운다. 프레슬리는 호놀룰루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1973년부터 이 무용소에서 춤을 배우고, 할라 함을 도우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1994년 할라 함이 작고한 후에 소장을 맡고 있다. 학생 명단에서 한국 성(姓)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성, 중국인 성, 서양인 성을 볼 수 있다. 완전한 국제반으로 다문화 하와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IV. 결론

하와이의 다문화는 사탕수수 농장 이민자들과 함께 비교적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1852년에 시작한 하와이왕국으로의 중국인 이민을 시작으로 포르투갈인과 일본인, 그리고 미국 영토가 된 초기에 한인과 필리핀인들이 도착하면서 이들 민족 모두의 문화가 어우러졌다. 한인은 총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지만 뚜렷한 전통 문화를 보급하며, 이를 하와이의 다른 주민들과 공유하였다. 처음에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은 음식부터 시작하여, 한복을 선보이고, 연 날리기, 전통 혼례식, 단오절, 환갑잔치 등을 재연하면서 전통 문화를 단계적으로 소개, 보급한 것이다.

하와이에서 다문화가 비교적 원활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

은 이민자 모두가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왔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현재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른 서열 구분이 없었고, 어느 나라도 하와이왕국보다 경제적으로 우세하거나 열악하지 않았다. 어느 민족도 자국의 경제력에 의거하여 다른 민족을 무시하지 않았고, 하와이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같은 신분이었다.

더구나, 모든 이민자들은 지배국의 신분으로 강제적으로 하와이에 온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농장과의 계약서가 있기는 하였지만) 자유인의 신분으로 도착하였다. 모든 이민자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러 왔고, 농장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블루칼라니, 화이트칼라니 하는 절대적인 구분이나, 더럽거나 깨끗한(dirty or clean) 직업이라는 구분이 없었다. 단지, 다 같은 노동자의 신분으로 생활하였다.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들이 처한 사회적인 조건은 어느 민족 노동자들도 자국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착각이나 망상을 갖게 만들지 않았다. 더구나 1910년 이후 일본의 속국인으로 등록된 한국인들도 당당한 한국인으로, 또 한국 문화도 일본 문화가 아니라 당당한 한국 문화로 인식되었다.

하와이 다문화의 기초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신이었다. 주민의 혼혈 현상도 하와이의 다문화 형성에 일조하였다. 이민자들의 2세들이 타민족 여성과 교제를 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부모들의 반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혼혈가족의 구성원들은 어느 한쪽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다른 한쪽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다. 그야말로 ‘잡종(mixed blood)’ 인구는 다른 여러 민족의 문화를 비하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다.

일본인 성을 가진 학생이 백인 선생에게서 한국 전통 춤을 배우고, 포르투갈인의 아들이 대구무침이 맵지 않다고 불평하고, 백인 어머니의 아들이 김치, 깍두기를 맥주 안주로 먹고 자라는 곳이 다문화 하와이다. 총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한인의 김치가 1930년대부터 마켓에서 팔렸고, 1950년대에 김치 믹스 가루를 생산하여 판매한 곳이 하와이다.

포르투갈 콩짜개, 포르투갈 도넛 말라사다(malasada), 중국 잡채(chopsui), 김치와 고기전(meat jeon이나 fish jeon의 ‘전’은 jeon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하와이 국수 사이민(saimin) 등이 하와이 음식으로 간주된 곳이 하와이다. 포르투갈 이민자가 가지고

은 현악기 우쿠렐레(ukulele)는 하와이 음악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와이 악기가 되었다.

하와이왕국과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의 래도(來島)가 결정되었지만, 일단 하와이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의 문화는 정부의 아무런 제재나 독려를 받지 않고 형성되었다. 다문화 형성 과정에서 뚜렷하게 촉진제가 되어 공헌한 기관은 YWCA, 호놀룰루 미술박물관, 상의회(하와이에서는 상공회의소라 부르지 않는다. '工'이 빠진 것이다), 또 여러 축제와 퍼레이드 주관 단체 등 민간 기관이었다. 이민 민족 자녀의 교육을 맡았던 사립학교는 가장 먼저 다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각 나라의 문화 보급과 계승에 앞장섰다.

하와이 주가 드디어 1973년 주 헌법을 개정하여(9장 3조), 하와이 주의 다민족 문화를 보존·개발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다문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헌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 없이도 지난 120여 년간 하와이의 다문화는 하와이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하였다.

V. 나가는 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다민족 외국인의 수는 전체 남한 인구의 3%인 150만 명이라고 한다. 아마도 지금이 반만년 한국 역사에 한민족이 아닌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가장 많은 때일 것이다. 외국인 거주자 증가 추세와 함께 '다문화'라는 단어가 외국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 타 민족이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민족 거주와 다문화 형성이 자동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왕조 또는 국가에 귀화한 성씨(姓氏)의 수는 신라 시대에는 40개, 고려 시대에는 60개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30개였다고 한다. 조선 시대 여러 왕의 실록에는 왕이 외국인에게 성씨를 하사하고 집을 주고 간혹 벼슬도 주면서 정착하게 했다는 여러 기록이 있다. 이들 외국인은 조선인의 성씨를 가지고, 조선인 아내를 맞아 가족을 이루었고, 이들의 자손들도 물론 조선인, 즉 한민족이 되게 함으로써 단일민족 국가에 타 민족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들 외국인에

대한 조선회, 한국화는 그들 자신의 문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427년(세종 9년) 왕의 조회에 회회교식, 즉 이슬람교인이 자기 고유 의복을 입고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에 조정 신하들은 ‘우리나라 사람인 바이면 우리 의관을 입어야 한다, 의관이 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부끄러워한다, 회회교식으로 기도하는 의식도 폐지함이 좋다’는 등 그들이 고유 풍습을 버리고 조선에 동화하도록 강요하였다. 물론 당시 이들 외국인이 숫자적으로 적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부(왕의 내각)가 그들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문화는 공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역시 한국 국민은 타 민족, 다민족에 대한 한국화를 중용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하게 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신부(新婦)들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신부가 절에서 비구니 스님들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를 만드는 모습이라든가 김치를 담그고 파전 등을 만들어서 경로당 노인들을 대접하는 모습, 손주를 낳아주고 한국 요리를 잘 하는 외국인 며느리를 칭찬하는 시어머니 등이 종종 나온다. 어느 프로그램에도 이들 외국인 며느리들이 자기네 고유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 그들의 한국화 과정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 부인의 친정 방문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가난한 친정 식구들에게 부유한 나라의 남편이 ‘베푸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경제우월주의를 조장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20여 년간 농촌 여성 인구의 부족과 3D 직장의 노동 인구 부족 등의 사회적 여건에 의해 외국인 거주자 혹은 이민자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민법과 외국인 노동자법 등이 제정되었고, 이른바 국제결혼과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의 불법체류가 ‘커밍아웃’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타 민족의 문화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그들 외국인의 고유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다문화’라는 단어가 다민족 거주자를 칭하는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한국 문화를 포함한 하와이의 다문화 형성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른 민족의 문화가 자민족의 문화와 다를 뿐이며, 한 민족의 문화가 다른 민족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고 착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다문화가 이루

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국가 경제력의 순위가 곧 문화 우수성의 순위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이른바 문화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함께 거주하는 여러 타 민족의 문화가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기 어렵다. 농촌에 시집온 부인들의 나라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들이 돈 때문에 한국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라고 비하할 때 그들의 다른 문화는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다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다민족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다문화가정의 문제라고 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교육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는 인식은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수립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정책 수립·예산 집행과 동시에 국민들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다문화 사회 형성과 성장이 가능하다. 한국에 다문화 사회로 가는 과정의 시작점인 다민족 사회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 예상된다. 하와이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다문화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 등이 촉진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축제가 1,092개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축제에 장터국수, 칼국수, 비빔국수를 파는 텐트는 많아도 베트남 부인들이 만들어 파는 월남국수 텐트는 거의 없다. 다문화 사회라는 한국에서, 더구나 『뉴욕타임스』에 ‘월남국수가 유행하는 한국’이라고 보도될 정도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에서 월남 부인들의 월남국수 텐트를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태권도 시범은 볼 수 있지만, 베트남의 보비남(vovinam)이나 필리핀의 에스크리마나(eskrimana)를 소개하는 축제는 없다. 장고춤은 보여주지만, 베트남의 부채춤이나 필리핀의 대나무 댄스는 소개되지 않는다.

하와이의 한인 사회는 4,500여 명의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들로 시작되었다. 그들 중 600여 명의 부인과 680여 명의 사진신부가 더해진 한인 사회에서 이민 역사 20년 만에 김치, 대구무침, 무말랭이무침 등을 하와이의 음식으로 받아들여지게 했고, 한국 전통 춤이 빠진 학교 축제가 없도록 만들었다. 하와이에서 교회, 학교, 상의회, 축제단체 등이 앞장서서 모든 이민 민족의 문화를 선보이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들 다양한 문화를 하와이의 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미주 이민 1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태생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민 1.5세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세대)가 주한 미국대사로 서울에 주재하고 있다. 김성 대사는 1965년 미국의 새 이민법 이후의 이민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주 한인 새 이민사 40여 년 만에 이루어낸 성취다. 40년 후에 베트남 엄마, 필리핀 엄마 자녀 중에, 또 방글라데시 노동자 아버지의 자녀 중에서 베트남 주재, 필리핀 주재 또 방글라데시 주재 한국 대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한국어만 잘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중 언어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또한 엄마 나라의, 또 아빠 나라의 문화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민족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왜 한국 문화와 다른지 알게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시작이다. 다민족 가정의 자녀들을 하루 빨리 한국문화로 동화되도록 강조하고 당연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

물론 여러 지역의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타 민족 문화를 알리는 등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과 함께 좀 더 적극적인 방법들도 병행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축제에 월남 엄마들을 포함한 동남아인들이 월남국수, 땅콩 과자, 땅콩 소스 등을 만들어 팔 때, 자녀들과 남편들도 신나서 거들어 주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도 깊어질 것이다. 땅콩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재료다. 또한 제한된 교실에서의 교육보다 좀 더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지역축제와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자랑(‘탈런트 쇼’)에 다민족 자녀들이 부모 나라의 고유 의상을 입고, 부모 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무술을 보여주고 고유 음식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이덕희. 2008.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학원, 대한인동지회』. 서울: 한인기독교회·동지회.
- _____. 2013.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100년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Ellis, George R. 1990. *Honolulu Academy of Arts, Selected Works*. Honolulu: Honolulu Academy of Arts.
- Honolulu Advertiser*. 1914. “Symbolism of Quaint Korean Play Unfolds Moral for Race Upliftment” (June 21).
- Kuykendal, Ralph S. 1938, 1953, 1967. *The Hawaiian Kingdom*.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Raihanah, M.M. 2009.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Expression: An Appraisal.”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7(3), 63-70.
- Territory of Hawaii. 1906. *Report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to the Governor*. Honolulu: Territory of Hawaii.
- Zimmerman, Kim Ann. 2012. LiveScience Web page/Google (July 9).

Abstract

Early Korean Immigrants and Hawaii's Multiculturalism, 1903-1959

Duk Hee Lee Murabayashi Korean Immigration Research Institute in Hawaii

Hawaii's multicultural or multi-ethnic cultural heritage is largely due to its history of sugar plantation immigrants interacting with "native" Hawaiians, the earliest immigrants from the Marquesas Islands and Tahiti. How did Hawaii's multicultural or multi-ethnic culture come about? Who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shaping of Hawaii's multicultural or multi-ethnic culture? Did its governmental policies and regulations have an influence on the shaping of Hawaii's multiculturalism, just as the control on the the number of immigrants entering Hawaii as sugar plantation laborers did? Or did early Korean immigrants contribute to Hawaii's multi-culture on their own? How did Korean culture get incorporated into Hawaii's multicultural society? This paper is written in an attempt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also discusses and suggests in the epilogue how Korean society may also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as it did in Hawaii.

Keywords | multiculturalism, multi-ethnic culture, sugar plantation immigrants, private schools, civic organizations, cultural superiority complex

